

오페라를 읽으면 시대정신이 보인다

오페라 읽기의 즐거움 선사하는 책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 아는 만큼 '들리는' 것이 음악이다. 그 가운데 오페라는 더욱 그렇다. 그렇지만 오페라를 흡족할 만큼 속속들이 알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오페라가 너무나 귀족적이어서 일반인은 범접할 수 없다는 편견 때문이고, 오페라가 음악과 문학 사이에서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해 온 독특한 예술장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낡은 편견을 과감히 깨뜨리고, 오페라를 음악에 앞서 한 시대를 풍미한 대중적 서사문학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시대·작품별로 개괄한 오페라 해설서들 최근 오페라 '읽어주기'를 자처하는 책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이 책들은 아직도 구름 속을 떠도는 듯한 오페라를 우리 삶의 결자리로 끌어내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단연 오페라 해설서가 대중을 이루지만, 오페라의 역사를 개괄하고, 오페라의 사회사를 다룬 목적인 교양서도 있다.

《오페라는 살아 있다》(박준용, 폴리포니)는 초기 오페라부터 러시아와 프랑스를 거쳐 현대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명작 오페라를 시대순으로 개괄했다. 《벨 칸토 오페라》(찰스 오스본 외, 김신환, 음악춘추사)는 19세기 이탈리아 벨 칸토 오페라의 진수를 보여준 로시니, 벨리니, 도니체티의 오페라 118곡을 공연실황과 함께 엮은 벨 칸토 오페라 종합해설서다. 이덕희의 《세기의 걸작 오페라를 찾아서》(작가정신)는 오페라 역사에서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 14편을 선정해 당대의 엇갈리는 예술적 평가와 오페라 역사에 끼친 공헌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했다. 《명작 오페라 해설》(편집부, 삼호출판사), 《오페라: 똥똥한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박준용, 음악세계), 문고판 《오페라의 즐거움(전3권)》(류영현, 음악춘추사) 등은 들머리에서 오페라의 역사를 개괄한 후 작곡가별로 주요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1597년 페리가 작곡한 <다프네>가 인류 최초의 오페라로 기록된 이후 오페라는 4백여년 동안 대중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왔다. 그렇지만 그동안 서양오페라가 누려온 대중적 인기와 비하면 한국 오페라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삼의 《세계 명 오페라 해설》(세광음악출판사)은 비록 내용이 빈약해 아쉬움도 남지만 펍 반갑고 의미 있는 책이다. '세계 명 오페라'의 반열에 한국 오페라의 효시인 현제명의 <대 춘향전>, 김동진의 <심청전> 등을

올려놓고, 한국오페라사를 연대기별로 정리하기 때문이다. 《오페라의 역사》(레슬리 오레이, 류연희, 동문선)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유일한 오페라 역사서다. 이 책은 오페라의 기원부터 20세기 까지 시대별로 나눠 오페라 4백년 역사를 종단한다. 대원사가 펴낸 《오페라 감상법》(조성진)은 오페라 감상의 기본 태도부터 공연 시스템, 마니아가 되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준다.

**소설적인 재미 더하고
인문학적 지평 넓은 책들** 《꿈의 오페라 여행》(양승욱, 솔바람), 《오페라를 만나러 가자(전3권)》(김선옥 외, 풀빛)는 오페라의 서사에 좀더 초점을 맞췄다. 《꿈의...》은 도니체티의 <사랑의 묘약>에 흐르는 아름다운 아리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1막 2장에 등장하는 비올레타의 아리아 <아, 그대였던가> 등 유명 아리아의 노랫말도 확인할 수 있다. 모두 세권으로 구성된 《오페라를...》은 '사랑과 질투' '종교와 신비' '역사와 인간'으로 주제를 나눠 오페라를 소설처럼 읽어준다.

오페라에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원한다면 김학민의 《오페라 읽어주는 남자》(명진출판)를 권하고 싶다. 지은이는 사랑을 주제로 한 오페라 7편을 통해 오페라를 우리 삶의 가장 솔직한 단면과 연관시켜 설명한다. 근래에 출간된 책일수록 다채로운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돋보이는데, 《클라시커 50—오페라》(볼프강 빌라웨크, 이재황, 해냄)는 걸작 오페라의 공연장면을 3백여컷의 컬러 화보에 담아 읽는 재미에 보고 느끼는 재미를 더했다. 또한 각 오페라의 원전, 창작배경 등 많은 정보를 무리없이 소화해내는 독특한 편집도 눈길을 끈다.

좀더 깊이 있는 오페라 입문서를 원한다면 《비바 오페라》(박홍규, 가산출판사)가 제격이다. 이 책은 오페라를 민중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오페라의 역사에 감춰진 이데올로기를 파헤치는 '오페라 사회사'다. 지은이는 계몽, 혁명, 민족, 자유, 민중 등을 키워드로 오페라의 내면에 깃든 시대정신을 읽어낸다. 그런가 하면 오페라를 이야기하는 소설도 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원작소설 가스통 르루의 《오페라의 유령》(성귀수, 문학세계사)이 그것. 파리의 오페라 극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주인공들의 비극적인 사랑을 따라가다 보면 오페라에 대한 교양도 덩어리 얻을 수 있다.

—박옥순 기자